

그분의 가족으로 세례를 받다

마태복음 28:16-20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윌링던 교회의 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마태복음 28:16-20을 펼쳐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환영합니다.

[졸업식 사진] 자, 함께 상상해 보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졸업식 날이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공부하고 배우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연설에서 “잘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멋지지 않겠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의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 학교를 떠날 때입니다. 이 학교를 대표하고, 이 학교에 새 학생들을 모집하며, 이 학교의 가치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학교 유니폼을 주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제까지 나를 잘 따라와줬으니 이제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가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 할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대하신 하나님
- 위대한 사명
- 큰 가족

지난주 레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28:16-20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초점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라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정의한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자들을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이자 건축자이며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가족의 삶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처럼 서로 맞춰져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영적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대리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사랑과 화합 안에서 함께 걸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문구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이 읽어보고 가족들과 또는 라이프 그룹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곳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큰 가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대한신 하나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만나라고 하신 장소에서 열한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한 명의 제자들만 있는 이유는 유다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 지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 저의 첫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역 초반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울면서 딸이 미쳐서 자신을 해치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니, 그 어머니는 문을 열고 울면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딸이 칼을 들고 저를 향해 칼끝을 들이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제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청소년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제가 한 말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녀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가 어떤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테면 해봐!”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끝났고,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가 칼을 손에 쥐고, 저에게 힘으로 위협했지만, 저를 죽일 권세는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권세를 가지셨고, 이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실 때, 그것은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죄를 이기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이상 죽음의 권세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무엇이라 불리는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8: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부활 후의 사건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바로 이전에,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자’, ‘부인자’라고 부르거나, 어떻게든 정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제자들아, 부끄럽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오직 가족의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했든,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 안으로 부르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그를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가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목록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명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를 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하나 되어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사명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저는 윌링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읽은 첫 번째 버전은 전체적이고 강력한 버전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더 간단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들을 하나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의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 그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의사가 부모님에게 이름을 물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부모님은 제 이름을 ‘빈 도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제 이름이 적힌 레이블이 저에게 붙여졌습니다. 그 후, 그 공식적인 이름은 제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누군가가 바로 "당신"을 부른다는 것이죠.

요즘 저의 어머니는 제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으시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저의 행동이 좋지 않을 때 어머니가 "빈 도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거나 더 큰 의미에서, 제 이름과 가족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 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알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레이 목사님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하셨다면, 윌링던 교회와 오스틴 하이츠 교회가 함께 이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교회가 모든 민족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세례는 결코 가볍게 또는 즉흥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세례 교육, 고백, 때로는 금식, 그리고 공적인 사탄 부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온 삶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흥미로운 관행 중 하나는 세례를 세 번 주는 것입니다. 한번은 성부의 이름으로, 한번은 성자의 이름으로, 또 한번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물에 잠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방 교회에서 흔히 있었고, 서방 교회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200년경의 테르툴리안은 그의 저서 《세례에 대하여(On Baptism)》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16세기로 넘어가 보면,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세례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시민 등록이었습니다.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뱃티스트들(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들)이 신자 세례를 전파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 교회에게는 이들이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응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152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찰스 5세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나뱃티스트 남녀는 불에 타거나 칼에 의해 또는 다른 수단으로 한명도 예외 없이 죽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 펠릭스 만즈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거부한 이유로 취리히의 개신교인들에 의해 익사당했습니다.
- 미하엘 사틀러는 수도승에서 아나뱃티스트로 개종 후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며칠 후 익사당했습니다.
- 디르크 빌렘스는 감옥을 탈출하던 중 자신을 추격하던 경비병이 얼음에 빠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갔다가 다시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단지 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라, 세례가 단지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지켰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명명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서 믿는 자는 단순히 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고 소유하신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명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언약 가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4세기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피닉스 신학교의 웨인 그루덴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성부, 성자, 성령—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이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행해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세례에 대해 많은 신학적 내용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3:27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우리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 로마서 6:3-4 —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옛 자아에 대한 죽음이며, 새 생명으로의 부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 고린도전서 12:13 —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믿고 있다면, 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나의 정체성은 옛 자아에 있지 않고, 새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오늘 Discovery Classes를 검색하고 등록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가족

메시지의 처음에, 저는 교회 가족에 대한 긴 정의를 드린 후, 그것을 단락으로 간단히 줄인 버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짧은 버전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함께 성장함

여기서 저는 가족에 관한 어려운 점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가족을 정의해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문구는 가족 관계가 강하고, 친구나 사회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전적으로 맞다면, 깨진 가족들이 왜이리 많을까요? 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아이들이 있을 까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왜 지난 주말의 비극에서 필리핀 공동체 모두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 까요?

인간으로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지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위임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마태복음 28:10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백성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 즉 약속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가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도다.”

여기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자유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돈이 적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은 혼자였을 때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주말 일정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전반에서 그분을 향한 충성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모든 사람에게, 매일, 모든 곳에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성경 구절 중 하나는 히브리서 2:11입니다: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평범하고 연약하며 때때로 짜증을 내는지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그분은 언젠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의 정체성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PHOTO] 여러분은 군대의 장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아실 것입니다. 장관은 부하들에게 “거기로 가라” 하면 가고, “여기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정확히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는 일은 드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들이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월링던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삼으십시오
-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 위대한신 하나님 - 위대한 사명 - 큰 가족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위대한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이제 그분 피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